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한인 주거에 관한 연구*

- 문헌고찰과 현지 답사를 통한 1930년대 이전의 한인주거 분석 -

Study on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in Yunhaju of Russia pre-1930's.*

- Focusing on Analysis of related documents and Interviewing in Yunhaju -

성균관 대학교 건축학과
Post Doc. 연구원 이 영 심
한국교원대 가정교육과
교 수 조 재 순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이 상 해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Post. Doc Researcher : YoungShim Lee
Home Economics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JaeSoon Cho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 SangHae Lee

◀ 목 차 ▶

I. 서 론	III. 결론 및 제언
II. 연구결과	참고문헌

< Abstract >

Koreans were started moving to Yunhaju in Russia for escaping from tyrannical rule and famine in 1860's in Korea.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of Russia were made it very hard to get to know about Korean's life there so far. But it was known that Korean Diaspora has been kept traditional way of living in without

Corresponding Author: YoungShim Lee, Dept. of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300 Chunchun-dong, Jangan-gu, Suwon, Kyonggi-do, 440-746, Korea Tel: 82-31-290-7577 Fax: 82-31-290-7570 E-mail: yslee99@hanafos.com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기초과학연구사업 특정기초연구(과제번호: R01-2002-000-00252-0)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contacts between Korea for 140 years. This study examined the dwellings of Korean Diaspora in Yunhaju through reviewing related documents and records firstly and had a time to visit places which Koreans lived since 1860's for example Posyet(Посе́тъ), Suifen(Суйфун), Ussuriisk(Уссурийск), Vladivostok(Владивосток), Partizansk(Партизанск) and took interviews with Koreans who lived there pre 1930's. Results of research were as following : 1) A first place to settle down for Koreans in Yunhaju was Posyet(Посе́тъ) and scattered as time goes by far away from there. 2) Koreans were helping each other for living and they had their own self managing organizations in village there. 3) The villages which was made in Yunhaju by Koreans in the beginning were similar to traditional ones in Korea. 4) It was verified that dwellings which was built by Koreans in Yunhaju were similar to ones in north area in Korea. At that time lots of Korean Diaspora came from north part and they kept their own traditional way of building houses there for a long time. 5) Korean Diaspora have been kept traditional heating system 'Ondol' in their various types of houses until now in Yunhaju. Moreover, it is known that Russians prefer to set 'Ondol' in their houses recently as a very special and expensive heating system. This study would be a very good opportunity to standing out Korean history of housing in Yunhaju as well as evaluating their identification as Koreans. For this, it is needed to take more deep research in specific areas which could see more various types of housing and could compare ones between two countries.

주제어(Key Words): 이주한인(Korea Diaspora), 연해주(Yunhaju), 전통생활방식(traditional way of living), 전통건축방식(traditional way of building houses), 온돌(Ondol), 정체성(identifica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인들의 러시아 지역으로의 이주 역사는 186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140여 년에 이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사회,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한인들이 러시아에서 생활해 온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기존의 러시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주사와 독립운동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주거건축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오랫동안 한국과의 접촉이 없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면에서 전통 풍속을 지키고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주거와 주생활을 탐색함으로써 한국 전통의 건축·주거문화가 러시아 현지의 건축·주거문화와 절충되어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생활모습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

거사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와 주생활에 대한 파악을 통하여 이주 한인들의 정체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평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더 나아가 한국과 러시아 양국 주거문화의 비교는 다양한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이며 국가경제 차원에서 점차로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의 주거건축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 또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 첫 단계로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의 이주사와 주거에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여 1860년부터 1930년대까지의 한인 주거의 모습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연해주 현지 답사와 거주인 면접을 통하여 한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의 마을의 모습과 주거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30년대 이전 연해주 지역의 한인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의 고찰과 함께 현

지 답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여 연해주 지역의 이주사를 파악하고 주거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연해주 등지에서 발행한 신문과 잡지 등을 분석하여 당시 연해주의 한인거주 관련정보를 발췌,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신문은 해조신문(1908.2.26-5.26), 대한인정교보(1912.1.2-1914.6.1), 권업신문(1912.5.26-1914.8.29) 등이었으며 잡지는 삼천리(1929.7-1941.11), 개벽(1920.6-1926.8), 신동아(1931.11-1936.8) 등 이었다. 아울러 2003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연해주 지역의 답사를 행하여 당시 한인들이 거주하였던 마을터를 살펴보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이전에 연해주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을 면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37년 이전의 주거에 대한 회상이 가능했던 5명의 기록만을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거쳐 연해주의 한인거주 지역을 크게 포쉬에트(Посыет), 수이푼(Суйфун)·우스리스크(Уссуийск),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등의 네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기준 하여 네 지역의 마을과 주거의 내용을 각각 고찰하고 각 지역에 해당하는 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II. 연구결과

1. 연해주 거주 한인의 이주에 관한 개요

연해주는 서북쪽으로는 아무르강을 경계로 하며 동쪽으로는 따따르스키 해협과 동해를 경계로 하고 남서쪽으로는 두만강 하류에 인접해있다. 면적은 207,000km²에 달하며 극동 노령(흑룡강주)의 일부이다. 한인의 연해주에의 본격적인 이주는 1860년 청러 북경조약에 의해 연해주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점유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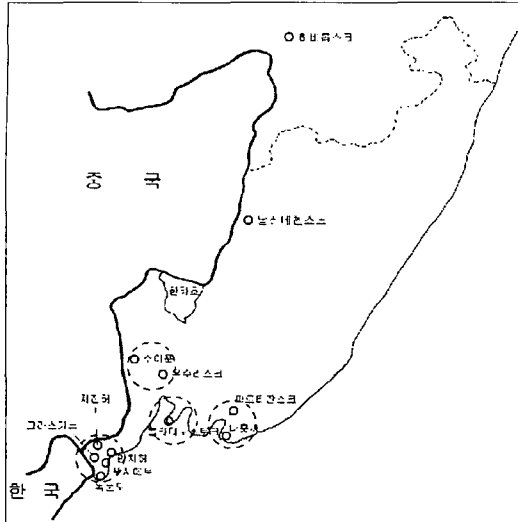
1860년대에 북한지방을 휩쓴 재해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은 북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당시 러시아 정부도 시베리아 식민을 위해

한인이주를 환영하였다. 연해주 지역으로 한인이주가 시작된 시기는 1858년, 1864년, 1868년 등 여러 설이 있으나 한인 농민 13가구가 1863년 겨울 두만강을 건너 포쉬에트에 정착한 것이 한인 이주의 효시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이전 1830년부터 1840년 사이에 두만강을 건너 당시 청국 영토인 우수리(연해주)지역에 이미 한인 선주민의 발자취가 있었다 한다(이상근, 1996).

1864년에는 60가구 308명이 이주했으며 272데샤티나(약 7,500평)의 토지를 점유했다. 1866년에는 100가구, 1868년에는 165가구, 1869년에는 766가구가 이주하였다. 당시 러시아인과 카자흐인의 수는 6,200명이었고 한인은 총 인구의 25%를 차지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한인의 이주 추세에 놀란 조선 정부와 러시아정부는 다 같이 이주방지에 나섰으나 그래도 약 3,500명의 이주자가 생겼으며 이들은 포쉬에트 구에 정착하였다(А.И.Петров, 2000).

1864년에는 포쉬에트 구역에 촌락 지진허가 생겼고 1867년에는 마을 하안치헤와 상안치헤, 시디미와 케드로바야파트가 생겼으며 1868년에는 니콜라에프카(수청지역), 1869년에 바라노프카, 1871년에 파타쉬, 1872년에 아디미, 1875년에 크라스노예셀로가 건설되었다. 1880년에는 지진허와 안치헤 마을 출신 이주자들과 조선으로부터 새로 도착한 주민들에 의해 압록강 분지에 자레치에 마을이 건설되었다. 1879년에는 암밤비, 1880년에 라자노프카, 1882년에 크라베, 1884년에 페스찬나야와 클레르크, 1885년에 몬구가이가 생겼다. 그리고 1869년에는 수이푼 구역에 크로우노프카, 1870년에 푸칠로프카 마을이 생겼다(이광규, 1998).

1910년 통계에 의하면 흑룡강 유역의 아무르주 지구에 1538명, 외바이칼호 지역에 378명이 거주했다. 1923년에 연해주의 조선사람은 10만을 넘어섰고 1927년에는 17만명 그리고 1930년대 중기에 그 수는 20여만에 달했다. 러시아 이주 한인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으나 연해주 지방의 현저한 산업성장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연해주 지역의 많은 한인들은 대부분 광부, 도로건설 노동자, 어부, 철로 노동자, 공장 노동자가 되었다. 또한 땅을 할당받지 못한 새 이민



〈그림 1〉 연해주의 주요 한인 거주 지역

자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서 땅을 빌리거나 농촌의 노동자가 되어야 했으며 그 마을에서 땅을 임대하지 못하거나 농촌의 노동자가 다 찾을 경우 다른 마을로 가거나 도시, 광산으로 갔다. 이렇게 한인들의 분산이 이루어지면서 한인들은 시베리아, 우랄, 그리고 유럽 러시아까지 이주하였다. 이 과정의 기본적인 기지 역할을 한 곳이 연해주였다.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한국침략이 본격화하자 많은 애국지사들이 연해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한인이주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진다.

1904년에는 연해주 지역에 32개의 한인거주지가 있었다. 그 중 31개 거주지가 연해주 남 우수리스크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러시아 농민 마을처럼 남 우수리스크의 행정책임자 관할하에 있었다. 1925년 연해주 토지청의 통계에 의하면 연해주에 164개의 한인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고 나머지 소수는 도시생활자 속에서 볼 수 있는 고용인, 노동자, 또는 영세상인으로 전전했다(이상근, 1996).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동년 8월에 소련과 중국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이 조약이 체결되는 8월 21일 소련인민위원회와 볼셰비키 당중앙

위원회는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주를 결정하였다.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는 193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시행하였고 이 때 총 3만 6442가구, 17만 1781명의 한인들이 이주 당하였다. 1991년에 구 소련이 와해되면서 구 소련에 속하였던 공화국들이 각기 독립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은 회교 민족주의에 의해 또 다른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 마음의 고향인 연해주로 돌아오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2. 연해주의 한인마을과 주거 형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연해주의 한인거주 지역을 크게 포쉬에트, 수이푼·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파르티잔스크 등의 네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네 지역의 마을 형성과 주거에 관련된 내용을 각각 고찰하고 각 지역에 해당하는 거주자들의 면접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1) 포쉬에트(Посыет) 지역

최초의 한인마을은 1863년 겨울에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포쉬에트 지역에 자리잡은 지진허 마을이다. 그 해 말까지 포쉬에트 지역에는 노바야 제레브나, 아디미, 파타쉬 등의 4개 마을이 형성되었다. 한인들은 매우 넓게 자리잡았다. 그들은 중앙에 거주할 오두막을 짓고 주위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건설했다. 그러한 형태로 1864년에 안치허, 베르흐네에 안치허, 빼스차노에 마을이 건설되었다. 1865년 초에는 남-우수리 지역에 5개의 작은 마을이 생겼고 약 120-130명의 주민이 살았다. 1865년이 경과하면서 포쉬에트 지역에 한인 65가구 343명이 유입되었고 1868년-1869년에는 약 900명의 한인이 유입되었다(A.И.Петров, 2000).

1904년에는 연해주에 32개의 한인거주지가 있었는데 포쉬에트 구역에 소속된 것만 해도 22개나 되었다. 1910년에는 남우수리지역의 104개 조선인 마을에 5만 명 이상의 조선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엔 빠세킨, 1904).



〈그림 2〉 아국어지도(俄國輿地圖)에 표기된 한인촌(我民村)



〈그림 3〉 아국어지도(俄國輿地圖)에 표기된 러시아인촌(俄民村)

엔 빠세킨은 〈프리야무르의 한인들〉에서 한인 마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한인 농가들은 계곡을 따라 쪽 흠어져 있으며 몇 가구의 농가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농가 주위에는 나무들이 보이지 않고 집 주위에 밭들이 붙어있다. 이로 미루어 연해주에 형성된 이주한인들의 촌락은 전형적인 한국농촌 풍경과 비슷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페테로프(А.И.Петров)의 글에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인들은 그들의 오두막을 나란히 평행하게 짓지 않았으며 무질서하게 지었다. 즉, 계곡의 강변을 따라 산개하여 10-15베르스파(1베르스파는 1.067킬로미터)에 걸쳐 농민부락을 이루었다. 한인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토지의 정 중앙에 오두막과 딸이 있는 건축물들을 세웠다. 한인 농업시스템의 특징은 농민이 자신의 밭 옆에 산다는 점이었으며 이는 집과 밭을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많은 노동량이 필요한 밭 경작에 적절하였다. 포시예트 지역에서 한인들의 거주지가 강변을 따라 산개한 이유는 이 지역이 언덕이 많은 지형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한 경제적인 요인 또한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А.И.Петров, 2000).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에 그가 여행한 안치혜 지역에 대하여 이 지역의 한인주거가 한반도의 한인 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그림 4〉는 당시 한인들의 주거와 생활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의 촌락들

은 한국에서라면 매우 강력한 지배계층의 저택일 그런 집들이 많았다.

엄격하게 한국식 건축으로 된 저택들은 대 여섯 개의 방을 포함한 커다란 집이다. 이들은 꼼꼼하게 짚으로 엮어서 지어졌으며 그 안은 무척이나 깨끗하다. 그러나 한국에서처럼 바닥을 덮혀 주는 동시에 벽에 뚫린 검게 그을린 구멍을 통해서 연기를 앞으로 토해내는 연도 대신에 한국인들은 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속이 텅빈 나무 등지를 통해서 연기를 하늘 쪽으로 내보내도록 해야 한다. 의복과 저택은 한국에서와 똑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상투 또한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크라스노예와 노보키예프 사이의 지역에서는 한국식으로 회반죽된 진흙과 기와로 이어진 지붕을 볼 수 있으며 주택지구와 농가의 안뜰은 회 반죽된 담 혹은 단정하게 짜여진 갈대로 만들어진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다. 대부분의 집은 얇은 벽과 천장, 격자무늬 세공문과 창을 가진 네 다섯 또는 여섯 개의 방을 가지고 있었다. 문과 창은 희고 투명한 종이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교하게 깔린 마루를 가지고 있었다. 문 밖에는 곡식 창고가 있었으며 말, 검은 돼지, 소들을 키웠고 손수레와 농기구 등이 늘어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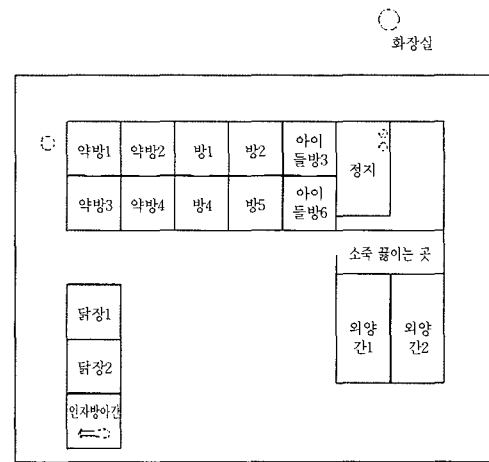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글에서는 바닥을 덮히는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당시 이주 한인들이 한국에서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을 고수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페테로프의 글에서도 한인 주택의 온돌에 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그림 4〉 시베리아의 한국정착민들 (출처: 이사벨라 버드비숍, p279)

한인주택의 바닥은 응고된 점토로 만들었는데 부유한 한인들의 경우 점토 위에 나무판을 깔았고 바닥을 온돌이라고 불렀다. 아궁이에서 전달된 뜨거운 연기가 바닥 밑으로 흐르면서 방바닥이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되었는데 온돌은 습기가 많은 연해주 기후에 특히 적합한 것이었다. 한인들의 주택에는 입구 바로 옆에 아궁이가 놓여있었고 연기는 굴뚝을 통해 배출되었다. 아궁이가 있는 작은 방은 부엌이었는데 아궁이 위에는 가마솥을 놓았고 그 옆에는 식기와 조리용 세간도구를 위한 조그만 찬장이나 선반이 있었다. 거주 공간은 칸막이 벽으로 두세 부분으로 나누어 부모님을 위한 방, 결혼한 자식을 위한 방 등으로 분류하였다. 가난한 한인 농부들의 주택에는 입구 오른쪽에 주거공간이 있고 왼쪽에는 나무로 대충 둘러서 만든 가축들을 키우는 공간을 두었다. 부유한 경우에는 오두막의 입구 왼쪽에 손님을 위한 객실이나 응접실로 부를 수 있는 방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그림이나 한문서체로 벽을 장식하였으며 바닥은 돛자리 등으로 포장하였다. 한인들은 보통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으며 러시아인 손님을 위한 작은 걸상을 두기도 하였다(A.И.Петров, 2000).

본 연구에서 면접한 한인들 중 전인수 할아버지(80세)가 1937년 강제이주 이전에 포쉬에트 지역에 거주한 경우였다(그림 5). 할아버지는 핫산지역 크라스키노 근처에 있는 핫타시(바두시)에서 태어났으



우물

〈그림 5〉 1937년 이전 포쉬에트 지역의 한인가옥 추정 평면도

며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이후 1989년에 파르티잔스크로 다시 돌아왔다. 강제이주 전에 살았던 마을에는 약 50호 정도의 가구가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집은 10칸 집으로 그 마을에서 매우 부유한 집이었다. 가족원은 모두 8명이었으며 집 앞에는 공동우물이 있어 이웃과 함께 사용하였다. 소가 네 마리 있었고 돼지와 닭들이 많았으며 버들가지로 집의 울타리를 만들었다. 주택은 흙과 짚으로 벽을 만들었으며 깔로 지붕을 씌웠다. 벽은 찌르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얇았으며 각 방은 서로 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전인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약방을 하셨는데 약방 1, 2, 3, 4가 할아버지가 약방을 겸하여 거처하면서 공부를 하는 공간이었다. 약방 1과 약방 3에서는 약초를 말렸으며 약방 2와 약방 4에서는 약을 찌었다고 한다. 집에는 온돌을 설치하여 매우 따뜻했다. 화장실은 집 뒤에 밭을 파고 바자올로 둘러서 사용하다가 다 차면 그 옆을 또 새로 파서 썼다. 정지(부엌)에는 아궁이가 있었고 여기에서 식사 준비를 했으며 여자들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정지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기도 했다. 제사는 돌아가신 후 3년까지 집에서 지내는데 정지에서 지냈으며 그 후엔 산에서 지냈다. 남

자들은 앞 칸(방 4와 방 5)에 거주하였으며 여자들은 뒷 칸(방 1과 방 2)에 거주하였다. 남자들은 정지에서 밥을 해서 날라주면 각자 자기 방에서 식사를 하였다. 콩, 감자, 논벼 등을 재배하였는데 벼가 열기 시작할 때 이삭 떨기를 시작하였고 타작하는 장소는 집 앞마당이었다.

2) 블라디보스톡(Владивосток) 지역

조선에서 러시아로 넘어오는 한인들은 북쪽에서 육로를 통해 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한편 이들보다 그 수가 적기는 해도 중부나 남부에서 오는 한인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기선을 타고 와서 블라디보스톡에 정착하였다. 땅을 할당받지 못한 한인들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들에게서 땅을 빌리거나 농촌의 노동자가 되어야 했으며 그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다른 마을 혹은 도시, 광산으로까지 이주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많은 한인들이 블라디보스톡 근방과 심지어 근처 섬으로까지 이주하였다(이상근, 1996).

1873년을 전후해 블라디보스톡 빠그라니치나야 거리에는 한인들이 집단 이주하여 형성한 한인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의 집들은 대개가 러시아 식의 작은 집이었으며 내부는 한국식 온돌방으로 돌 내지 셋이 생활하였고 많은 경우에는 20명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에 집단적인 한인거류지가 형성된 것은 1893년이었다. 그 해에 처음 만들어진 집단 거류지는 까레이스카야 슬라보드카(고려인촌, 개척리)로 700여 가구, 7,500여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개척리에는 1874년 당시 한국식 초가집이 있었으며 남녀 25명이 거주하였다 전해진다. 개척리 외에도 동영(東營), 돌막거리(石幕洞), 피막동 등의 작은 규모의 여러 한인 집단 거주지들이 있었다(成大史林, 1997). 당시 블라디보스톡 인구수가 7만 9,699명이었음을 감안할 때(해조신문 제61호, 1908. 5. 6), 거류지 한인의 인구는 전체인구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1907년경에는 개척리를 필두로 하여 도합 7개의 집단 거류지가 형성되었으며 전체 총 994호, 1만 400명의 한인들이 거주했다(현규환, 1953). 이

중에서 약 70%가 개척리에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30%의 인구가 여타 6개 소규모 거류지에서 생활했다. 블라디보스톡은 우리나라 잡지 삼천리에도 언급되어 있었다. 즉, 조선에서 기항을 타고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시베리아(西伯利亞)의 해삼위(海參威: 블라디보스톡)라는 곳에는 인구 10여만 명 중 조선사람이 7천여 명이다 라고 하였다(삼천리, 1929. 7. 장간호).

1911년 3월에 러시아 당국은 페스트 방지 등의 이유로 한인거류지인 개척리를 폐쇄하고 새롭게 조성하는 신한촌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신한촌에는 순전한 러시아식의 건물들이 준비하여 구 개척리와 크게 대비되었다. 권업신문(1914. 5. 5)은 구 개척리에서 한인들이 움막과 돌막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어떤 때는 제 집의 지붕이엉을 길 인줄 알고 다니는 일도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신한촌은 3백여 호 되는 한 부락에 수삼천명 남녀노소가 즐겁게 사는데 날판집에 유리창을 붙이고 장판방에 교의상을 놓았다고 언급하여 구 개척리와 비교하여 한층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의 산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신한촌은 칼날같은 돌 부스러기가 빈틈없이 깔려있고 바위가 울퉁불퉁한 말하자면 흙 한줌도 얻기 어려운 앙상한 들 꼭대기에 터를 닦고 널 폭을 잇대어 집을 지었으며 돌을 주워 온돌을 놓고 조짚으로 이엉을 예고 널빤지를 맞대어 높게 혹은 낮게 네모 굴뚝을 세웠다. 이 글을 통하여 신한촌의 이주 한인들이 온돌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31년에 신한촌을 관찰한 한 일본인의 보고문 역시 신한촌의 집들에 온돌이 놓여 있음을 언급하였다. 신한촌에는 명천, 길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육지로 혹은 쪽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품팔이 노동을 하다가 가족들을 데려와서 신한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곳의 초기 마을의 주거는 함경도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딱지 같은 3칸 집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신한촌의 초기 이주민들은 고기잡이와 각종 노동으로 매일의 빈곤한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집 옆에 온갖 채소를 가꾸고 닭치기, 돼지치기도 하며 마을을 건



〈그림 6〉 블라디보스톡 주택 앞의 한인그룹 20세기 초 사진 (출처: А.И.Петров (2001),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1897-1917 гг. ДВО РАИ, p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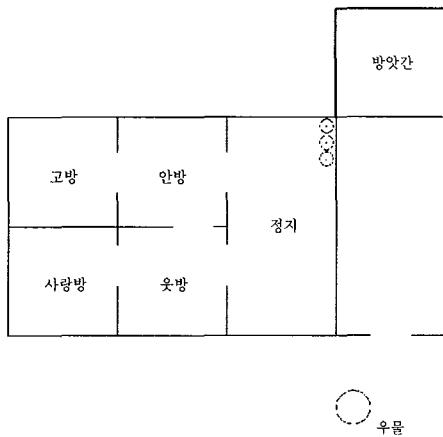
〈그림 7〉 블라디보스톡 카레이스까야 거리 (출처: Primorski State Museum (1992), Old Vladivostok, Utro Rossii)

설하였다. 1910년에는 산비탈의 남쪽으로 아무르스까야, 하바롭스까야, 벨리니폼스까야 등의 3개 거리가 형성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의 신한촌에는 모두 210개의 업체 또는 가게들이 줄지어 설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반병울, 1999).

신한촌은 한국식 풍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언어, 의복, 풍습 면에서 어느 정도는 러시아 화된 한인들과 함께 어울려 거주하던 곳으로 元戶人(러시아 국적에 입적하여 토지를 부여받은 한인들)촌과 餘戶人(러시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원호인이나 러시아인들로부터 토지를 소작한 한인들)촌이

따로 구별되어 있던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매우 독특한 경우였다(이상근, 1996).

본 연구에서 면접한 한인들 중 리나자 할머니(73세)가 1937년 강제이주 전에 블라디보스톡 신한촌에서 거주하였던 경우였다(그림 8). 할머니는 신한촌에서 감자와 조 농사를 지었다. 당시의 주택은 방 3칸과 고방(곡식 창고), 정지(부엌)가 있었고 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셨다. 그 당시 신한촌에는 한인들이 3-4호씩 모여 살았다 한다. 리나자 할머니는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제 4명이 감차카로 가서 시골 지역에서 살기도 했는데 이 때는 조와 찰지장을 심고 연어를 잡아 살았으며 그곳에서는 통나무 집(무티)에서 거주하였다.



〈그림 8〉 1937년 이전 블라디보스톡 지역 한인가옥 추정 평면도

3) 수이푼(Суйфун) · 우스리스크(Уссуйск)지역

1869년과 1870년에 조선에서 대기근이 발생하면서 한인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 이주하였다. 뒤바보가 기록한 [독립신문]과 [아령일기(상해판)]에 의하면 최운보가 빈민 35호를 인솔하고 추풍(수이푼)에 넘어와서 새로 개간할 기초를 닦았으며 그 이듬해 6월에 또 빈민 60여 호가 러시아 관헌의 지도를 받아 지진허로부터 추풍에 이주하였다고 하였다. 이들은 의지할 가옥이나 식량이 전혀 없었으며 러시아로부터 배급식량을 받아 연명하였으나 절대량이 부족하였다(이상근, 1996).

1869년 이후에 한인들이 러시아 연내로 대량 이

동하자 러시아 정부는 이전의 한인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바꿔 한인들을 한·러 국경에서 멀리 그리고 러시아인 촌락에 산재시킴으로서 한인 이민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처하였다. 그 결과 한인들은 수이푼, 슈판, 레푸강가, 그리고 수찬(수칭: 파르티잔스크)지역에까지 정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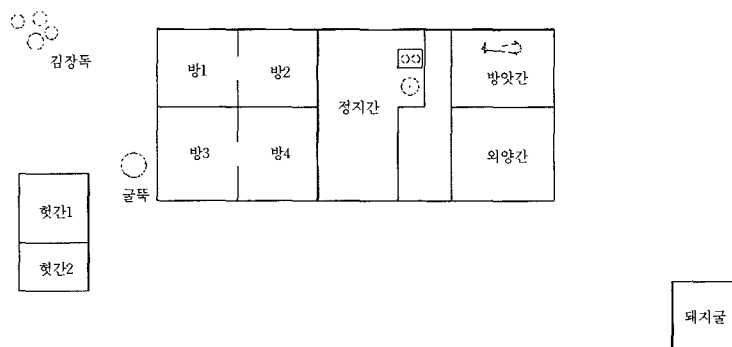
1870년에는 지진허 마을의 조선인 96명이 3척의 배를 타고 추풍으로 가다가 해삼위(블라디보스톡)에서 암초에 부딪혀 22명이 조난당하고 나머지는 러시아 사람들의 구원을 받아 상륙한 뒤 도보로 8일만에 겨우 소왕령(우스리스크)에 이르러 개척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1870년 5월말까지 448명의 남녀가 니콜스끼에 도착했다. 그들 대부분이 수이푼 강의 오른쪽 지류로 니콜스끼 마을에서 12베르스타에 이르는 후안호우강 분지를 이주지로 선택하였다. 이곳에 68가구 282명이 이주했다. 이 외에 레푸 강 새 도로변의 전신국 근처에 25가구 101명이 이주하였다. 당시 그 지역 축탁관리였던 푸질로는 한인들에게 땅과 종자를 나누어주고 마을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 마을마다 촌장과 서기를 선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한인들은 연해주에 이주하여 처음으로 촌장과 서기로 구성된 자치적인 기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선출된 사람들은 모든 치안업무와 약간의 사무처리를 담당하였다. 이 밖에 한인들은 관습에 따라 스스로 각 마을마다 주민들의 도덕을 유지시켜 줄 고령

의 노인을 뽑았다. 이 노인은 실질적으로 권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한인들은 촌장보다 그를 더 존경하였다(이상근, 1996). 향약 등으로 조선에서 자치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한인들은 연해주에서도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한인들은 연해주 지방에 거주하면서 러시아의 행정체계 아래 놓여 있었지만 자치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운영하였으며 관혼상제 시 서로 도우며 두터운 동포애를 발휘하였고 서로 협력하였다.

1870년에는 코르사코프카, 크로우노프카, 푸칠로프카, 시넬리코보 등의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1871년에는 아무르강 지류까지 올라가 블라고슬라벤노예 마을을 건설하였다. 그 중, 푸칠로프카 마을 건설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1875년 8월 1일 푸칠로프카 지역에 도착한 한인들은 8월 2일부터 집 짓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스스로 러시아인들과 같은 집을 짓길 원했다 한다. 처음에 도끼를 다룰 줄 알고 집짓기에 참여한 한인은 15명에 불과하였으나 기술자가 한인들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8월 29일 경에는 한인들 스스로 집을 지었다. 겨울이 올 때까지 45채의 목조가옥과 학교용의 만추식 흙담집 8채, 그리고 목욕탕 2개와 창고를 지었다. 한인들의 가옥은 러시아 식에 한식을 가미한 것이었으며 집 둘레엔 울타리도 만들었다(이상근, 1996).

본 연구에서 면접한 한인들 중 할아버지 한 분이 1937년 강제이주 전에 푸칠로프카 마을에서 거주하



〈그림 9〉 1937년 이전 우스리스크 지역 한인가옥 추정 평면도

었던 경우였다(그림 9). 할아버지는 1937년 11살의 나이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후 1990년에 연해주로 돌아왔으며 현재는 파르티잔스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그 당시 푸칠로프카 마을에는 200호 정도가 살았는데 마을에는 교회도 있었다. 가족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녀 3명이 함께 살았다 한다. 그 당시의 주택은 모두 초가집 모양이었고 집을 빙 둘러서 텃밭이 있었다. 울타리는 없었고 집의 벽은 흙과 짚으로 만들었다. 방은 모두 4칸이었고 정기간 맞은편에는 연자방아가 있는 방앗간과 외양간이 있었다. 온돌을 사용하였으며 바닥에는 깔을 엮어서 깔았다. 집의 문은 창도 되고 문도 되는 형식이었으며 문고리가 없었다. 땅을 파서 김장독을 만들었으며 디딜방아를 사용하였다.

4)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지역

1869년 이후 조선에서의 대 기근으로 한인들이 대거 국경을 넘어 러시아 연대로 이동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초기에는 군량미의 일부를 한인들에게 식량으로 보조하고 淸國의 만행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등 우호적이었으나 대규모의 한인 이민이 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인들을 한·러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러시아인 촌락 속에 산재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인들은 수이푼과 슈판, 레푸강가 그리고 수청(파르티잔스크) 지역까지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잡지 삼천리(1932. 7, 특대호)에서 파르티잔스크 지역에 대하여 언급한 글을 찾을 수 있었다.

해삼위에서 배를 타고 200리쯤 동북해안으로 돌아 가면 內水淸(따우지미)란 곳에 다다르게 된다. 이곳은 노·보 리듬스고란 적은 波止場에서 약 10리쯤 산골로 들어오는 작은 평원이다. 여기에 정착되어 있는 농민은 약 40여 호에 불과하고 인구는 300명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40여 호 밖에 안 되는 곳이지만 남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사는 촌이라 건넌마을에 있는 러시아 농부들이 때때로 農糧이나 農具를 이곳으로 빌려 온다. 이 40여 호의 농민은 토지를 평균 분배하여 가지고 있다. 분배방법은 이 농촌

주민대회에서 결정하였는데 학교와 농민상조회와 공동 농경지 약간을 제하고는 나머지 전체를 매 1인에 일일반 경작분(하로 반나절가리)씩 나누어서 3인의 식구가 있는 가족엔 4일반 경 10인의 식구가 있는 가족은 15일 경씩 나누었다. 토지는 이렇게 평균분배를 하였고 또 가축을 먹이는 목장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광대한 목장에다 울을 둘러막고 그 안에다가 뉘집 가축이든지 자유로 갖다 먹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토지와 가축처리에는 하등의 곤란을 받지 않아 한다.

파르티잔스크는 원래 중국어로 수청(수청: 水淸)이라 하였는데 이곳은 인구가 7만 8천 여명인 작은 도시이다. 이곳에는 현재 한인들이 3천 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반은 최근 3-4년 사이에 중앙아시아에서 재 이주한 사람들이다. 파르티잔스크에서 북쪽으로 46km 떨어진 파스크에는 타지크 공화국에서 재 이주한 농가 수십 호가 바라크 집(임시숙소)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한다. 1907년 바이칼에 진출한 한인 어망 노동자들 역시 숙소로 바라크 집을 지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바라크 집 또한 한인들이 택했던 하나의 주택 형식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이광규, 1998).

파르티잔스크 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하여 거주 인구가 많지 않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마을과 거주 관련 기록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본 지역의 한인 마을과 생활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면접한 한인들 중 박 엘레나 할머니(70세)가 1937년 강제이주 전에 파르티잔스크에 거주하였던 경우였다. 할머니는 1933년에 파르티잔스크에서 태어났으며 4살 때 중앙아시아로 이주 당한 후 2002년에 이곳으로 다시 왔다. 연해주 거주 당시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여동생, 남동생 등 6명이었다. 그 당시에 거주하였던 집은 네 칸 집으로 안방, 고방, 옷방, 방앗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 칸마다 구들(온돌)이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한 방에서 잤다. 할머니는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할 때도 구들을 놓았으며 신발을 벗고 좌식 생활을 하였다 한다. 주요 작물은 콩, 벼, 무, 배추 등이었고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했기 때문에 버스, 전기세, 물세를 반씩만 냈다 한다.

또 다른 한 분은 민올가 할머니(76세)로 파르티잔스크에서 나서 10살 때 중앙아시아로 이주 당한 후 1999년에 연해주로 돌아온 경우이다. 그 당시 파르티잔스크 지역의 마을은 20호 정도 되었는데 할머니는 무티(통나무집)에 살았다 한다. 한인들의 집에는 온돌이 있었는데 온돌방에서 5-6명이 함께 모여 화투놀이를 하기도 했다. 집 주변에 기와집과 나무 널로 된 집들도 있었다

III. 결론 및 제언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의 주거와 주생활 탐색을 위한 첫 단계로 본 연구는 한인들의 초기 이주지역인 연해주를 주요 연구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관련 문헌 고찰과 연해주 현지 답사 그리고 현지 거주인 면접을 통하여 한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기 전까지의 마을의 모습과 주거의 형태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860년대에 시작된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조선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던 포쉬에트를 기점으로 시작되었고 점차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한인들의 이주 경로는 육로와 해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주 한인들은 대다수가 농민으로서 이주하여 땅을 개간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도시의 노동자가 되거나 광부로서 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인들이 연해주의 농촌뿐 아니라 도시 지역에까지 넓게 분포하게 되었다. 1900년대 이후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주하여 연해주가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 1991년 구 소련이 와해되고 구 소련에 속해있던 회고 공화국들이 독립하면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던 많은 한인들이 그들 선조의 고향인 연해주로 돌아오고 있다.

2. 이주 한인들은 조국에서의 기근과 폭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한 후에 러시아 관헌의 지시에 충실

히 따르며 새로운 땅에서 적응하고자 애썼다. 그들은 타지에서 생활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졌으며 서로 돕고 보호해주었다. 조선에서 행하였던 향약 등을 이어받아 연해주에서도 자치 기구를 형성하여 마을을 운영하였으며 어떠한 기구들은 러시아 관헌들에 의해 정부지시의 하달기관으로도 사용되는 등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는 이주 한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로 간주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인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3. 한인들이 1860년대에 연해주로 건너가 형성한 초기의 촌락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과 유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주한인들은 강변을 따라 거주지인 오두막을 되도록 넓게 분산시켰으며 각각의 오두막 가까이 경작지를 두어 오가는 시간을 줄이고 농사짓기에 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주택 건설과 마을 형성은 지형적인 원인 이외에 되도록 경작지를 넓게 확보하여 많은 수확을 거두고자 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적들의 습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초기 이후엔 이런 유형의 마을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4. 연해주 이주 한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었던 포쉬에트, 수이푼·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 파르티잔스크 등의 주거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은 두만강 하구에서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포쉬에트 지역으로 1904년 연해주에 형성하였던 32개의 한인 거주지 중 22개가 이 곳에 있었다. 이 지역의 한인주거는 당시 한국의 전통 주거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었다. 이주 한인들은 회 반죽한 진흙 벽과 초가, 혹은 기와 지붕을 사용하였으며 갈대로 짠 울타리를 사용하였다. 특히 전통적인 난방방식인 온돌을 사용하였는데 부엌의 아궁이를 조리용과 난방용으로 함께 사용한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블라디보스톡 지역에는 1874년에 처음으로 한인들이 이주하는데 초기의 주거형태는 초가집이었다. 이후 1893년에 집단적인 한인 거류

지인 개척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움막과 돌막집 등이 형성되었다. 1910년대에 조성한 신한촌의 주택은 유리창과 장판방으로 구성하는 등 한층 개선된 모습이었으며 전형적인 러시아 식의 건물도 많이 건설되었다. 이는 블라디보스톡 지역이 갖 이주한 한인들과 어느 정도 러시아화된 한인들이 함께 거주하였던 지역적인 특성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한촌에서도 역시 온돌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초기의 주거는 전형적인 함경도 농촌마을의 주택형식인 3칸 집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이푼·우스리스크 지역의 한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집 짓는 기술을 배워 러시아 식 집을 짓기도 했으며 대부분 한식과 러시아 식이 혼합된 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한인과의 면접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도 한인들이 온돌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르티잔스크 지역에서는 한인들이 초기 정착시기에 임시숙소인 바라크 집을 지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통나무집(무티)과 기와집 그리고 나무 널로 된 집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면접 조사 결과 이 지역에서도 역시 온돌을 사용하고 있었다.

5. 1937년 이전에 연해주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한인들을 면접 조사하여 주택의 추정 평면도를 작성한 결과 당시의 한인주거는 함경도 등의 북한지역의 주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연해주 거주 한인들의 출신지가 함경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 문헌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주 한인들이 연해주에서도 한국에서의 주거형식을 계속 유지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6. 문헌고찰과 거주인 면접을 통하여 현재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으로 다양하며 주택 내부의 구성 역시 한식과 러시아 식이 혼용된 형식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전통 난방방식인 온돌은 고려인의 주거 형식으로서 뚜렷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들어 온돌은 러시아인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경제적으로 여

유가 있는 러시아인들의 경우 주택 내에 온돌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러시아인 주택 내에서 한국적인 주생활 요소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러시아 연해주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독립운동사나 이주사에 중점을 두어 연구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건축·주거관련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정 이주민의 주거와 생활상은 이주민들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연해주 한인의 주거에 대한 탐색은 연해주 이주민의 주거사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미래의 발전 방향까지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따라서, 연해주 이주 한인들이 이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전통 주거를 어떻게 지속시켜 왔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주거 형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적인 요소들을 적용하여 왔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어떠한 요소들이 가장 강하게 지속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1993). 국사관논총, 41.
 근대독립운동사와 연해주 신한촌 고려인 문화의 날 준비위원회(1999).
 개벽, 1920. 6~1926. 8.
 권업신문, 1912. 5. 26~1914. 8. 29.
 대한인정교보, 1912. 1. 2~1914. 6. 1.
 삼천리, 1929. 7~1941. 11.
 신동아, 1931. 11~1936. 8.
 성대사학회 成大史林 제 12·13 합輯(1997).
 俄國輿地圖 (1880년대 고종의 명으로 연해주 지역을 조사·제작된 지도임)
 이광규(1998). 러시아 연해주의 한인사회. 집문당.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이인화 역(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도서출판 살림.
 이상근(1996). 한인 노령이주사 연구. 탐구당.
 이상해, 이진현(2003). 연해주 지방 한인주거에 관한

-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3(1), 377-380.
- 이수경 외 3인(1996). 재소 한인사 개요. 건국대학교 학술지, 40.
- 이영심, 조재순(2003). 문헌자료를 통해 본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주거. 대한가정학회 제 56차 춘계학술대회논문집, p.185.
- 이채문(2000). 한인의 러시아 극동지역 이주 : 역사와 이론. 슬라브학보, 15(1), 365.
- 웨이바긴. 아무르의 한인들.
- 조재순, 이영심, 이정규, 이선희(2003). 중앙아시아에서 연해주 정착촌으로 재이주한 재소 한인 가족의 주거생활 사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3), 101-107.
- 현규환(1953). 한국 유이민사. 어문각.
- 해조신문. 1908. 2. 26~5. 26.
- А.И.Петров (2001).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В РОССИИ 1897-1917 гг. ДВО РАИ.
- А.И.Петров (2000).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ОССИИ 60-90-е годы? XI X века. ДВОРАН.
- Primorski State Museum (1992). *Old Vladivostokm Utro Rossii.*

(2003년 5월 28일 접수, 2003년 6월 10일 채택)